

韓國 現代詩의 形成過程에 受容된 美國的인 影響

沈 明 鎬

(서울大 師範大 英語科)

本稿의 目的은 朝鮮時代를 거쳐 내려온 韓國의 傳統的인 詩歌가 開化期 이후 現代詩로 變遷, 形成되어온 過程에 受容된 歐美文學 내지는 文化的인 影響중에서 특히 美國的인 影響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重點的이고 集中的으로 考察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시도가 다소나마 결실된다면, 한 나라의 傳統的이고 前近代的인 詩歌가 現代詩로 變化 發展함에 기여한 여러 要因들을 헤아림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서로 異質的인 文學 내지는 文化가 接合한 경위와 아울러 그 결과로 생겨난 새로운 文學의 性格과 特性을 규명함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本稿에서는 韓國의 傳統詩歌가 現代詩로 變遷, 形成되어온 過程이 대략 189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半世紀가 걸렸다고 보고, 이 期間에 발생한 중요한 變化들을 影響관계라는 측면에서 연대순으로 살폈다. 물론 이 期間 이전에 발생한 文化史的인 사건으로서 韓國 現代詩의 形成에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위에 설정한 時期的인 제약에 관계없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本稿의 내용을 보완했다.

I

文學作品의 단순한 比較연구가 아닌 影響연구는 그 方法論상에 심히 어려운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文學作品의 연구에서 解釋(interpretation)과 評價(evaluation)를 위해 批評(criticism)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반드시 동반되는 比較(comparison)도 마찬가지로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讀者나 評者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文學作品을 批評없이 받아들일 수 없으며, 比較없이 批評을 할 수도 없다. 比較

는 이처럼 批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참다운 藝術作品이 생겨났을 때 그 作品은 동시대와 그 이전에 만들어진 무수한 다른 作品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며, 그 作品이 解釋되거나 評價되어질 때에도, 그 作品은 다른 作品들과 간단없이 견주어지게 마련이다. 比較연구를 포괄하는 文學연구에서조차도 「比較」는 이처럼 「批評」과 근본적으로 나뉘일 수가 없다.

그런데 文學作品의 批評이나 比較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어떤 作品이 다른 作品의 構想이나 構成이나 形成過程에, 전반적이거나 부분적인 影響을 끼쳤다가, 후자가 전자에게서 그와 같은 것을 受容했다는 主觀的인 心證이 생겼을 때, 이를 경우에 따라 필요한 만큼 충분히 立證하여 客觀化하고 나아가서는 確實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스스로 떠맡은 文學上の 影響연구는 출발부터가 比較연구와는 次元을 달리한다고 본다.

文學上の 影響은 우선 둘 이상의 作家나 作品이 실제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며, 하나가 다른 것에서 받은 모든 종류의 受惠(indebtedness)를 뜻한다. 受惠는 흔히 양자 사이에서 類似性을 드러내지만, 그렇다고 類似性이 影響에 반드시 수반되는 요인은 아니다. 바로 이 점이 影響연구에서 再考되어야 할 하나의 문제점이다.

한 作家가 다른 作家의 作品 A에게서 어떤 影響을 受容한 바 있는 作品 B를 만들어냈다고 가정하자. 이때 그 作家는 B를 創作하는 과정에 A에게서 「a」라는 受惠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그 때 그 作家는 「a」를 變質시킴이 없이 거의 그대로 受容했을 수도 있고, 「a」에다 자기의 文學的인 經驗인 「b」를 첨가하여 「ab」라는 結合을 이루어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혹은 그 作家는 「a」에 「b」를 추가하여 「a」가 「b」에 압도된 「abbb...」와 같은 結合을 그의 作品 B에 가져올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a」에 대한 否定이나 反動으로 「c」나 「d」와 같은 전혀 간접적인 受惠를 이끌어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文學上の 影響이란 化學에서 方程式으로 풀이되듯, 투입된 물질들이 일정한 비율로 化合하여 다른 물질을 조성하거나, 反應이 없으면 그대로 남는 규칙적인 作用을 하지는 않는다. 文學의 影響과정에는 化學反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人間作家의 마음이 介在되어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우리는 적어도 3가지의 相異한 受惠狀況을 보았다. 그것들을

부호로 간편하게 표시한다면, 1) 「a」→「a」, 2) 「a」→「ab」, 그리고 3) 「a」→「abbb…」 혹은 「c」나 「d」가 된다.

첫째 狀況을 우리는 積極的(positive)이라고 한다면, 둘째를 折衷的(eclectic), 그리고 셋째를 消極的(negative)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相異한 受惠狀況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장 單明한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That's newly sprung in June:
.....

이러 畵은 詩에서

- 1) 나의 님은 흡사 六月에 갓핀
 빠알간 장미.....
- 2) 내 님은 아침 이슬에
 붉게 핀 장미.....
- 3) 인제 옛님은 강건너 벌판에
 쓴 냄새 퍼치는 할미꽃.....

이러는 3가지의 受惠狀況이 각기 성립되어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1)을 積極的인 受惠, 2)를 折衷的인 受惠, 그리고 3)을 消極的인 受惠라고 하여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

1)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례는 T. S. Eliot의 “The Waste Land”(1922)등에서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 2)의 경우에는 「아침 이슬」 이외에도,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라는 直喩가 「나의 님은 붉게 핀 장미」라는 隱喩로 바뀌어졌다. 3)의 경우는 「님」을 「꽃」에 비유한 受惠 이외에는 여타의 내용이 Robert Burns의 詩行에 대하여 消極的 내지는 否定的이다.

따라서 우리는 文學의 比較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影響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흔히들 애써 찾아오고 집착해온 授惠者와 受惠者 사이의 類似性이 위에서 설명한 1)의 狀況에서만 일차적인 의미를 지니며, 2)의 狀況에서는 그 의의가 현저히 감퇴되고 나아가 3)의 狀況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文學의 影響관계에서는 2)와 3)의 狀況이 1)의 狀況보다 더욱 중요할 때가 실제로 많은 것이며, 2)와 3)은 1)에 비하여 受惠狀況이 複合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만큼 더 신중히 다루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受惠에 상이한 狀況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예시하기 위하여 影響관계가 미리부터 성립되어 있는 경우들을 가정한 입장에서 고찰해 왔으나, 실은 影響연구를 시작하는 마당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곤란한 課題가 바로 그와 같은 影響관계가 어김없이 성립되어 있느냐를 가리는 일이다.

엄밀히 말해서, 어떤 作家나 作品이 受容한 文學的인 影響이란 A에서 B로 거의 變質되지 않고 옮겨와진 경우를 제외한다면, 거의 그 正體를 밝혀낼 수가 없다. 이 때 그래도 가장 신빙성 있는 證據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그 作家의 진술을 담은 物的 證據라 할 수 있는데, 이럴때 우리는 그 진술이 어떤 狀況과 時點에서 술회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시되고 있는 影響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가려야 하고, 나아가 그 진술의 眞僞와 信憑度를 헤아려야 한다.

이런 事實證據가 없거나 제시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어차피 그 밖의 情況證據나 參考資料에 입각하여 影響에 대한 우리의 心證을 客觀化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노력의 成敗는 우리가 결국 어느 정도까지 客觀化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 이유는 客觀化의 정도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影響연구에서 情況證據마저 찾아낼 수 없다면, 心證과 參考資料만 가지고서는 立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 때 여기에 경주된 노력은 影響연구가 아닌 比較연구의 영역에 속한다.

어떤 作家가 受容한 文學的인 影響은 첫째 그 作家의 과거의 모든 文學的인 經驗과 背景에 비하여 異質的이다. 이 말은, 한 作家의 作品 속에서 발견된 受惠가 그의 과거의 作品 속에도 들어 있음이 뒤늦게 발견될 수는 있으나 본래부터 그 作家의 經驗의 일부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受惠上의 異質性이 影響관계를 성립시켜주는 한 要因이 된다.

여기에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실은, 文學的인 影響이 受惠者에게는 이처럼 一次的으로 異質的이기는 하지만, 그 作家의 作品 속에서 受容될 때에는 그의 모든 과거의 文學的인 經驗과 만나서 調整되고 再構成되어 하나의 藝術作品의 一環으로서의 位置와 秩序를 부여받게 된다. 影響

이란 이처럼 異質的인 면서도 受容者의 作品 속에서 새로운 位置와 秩序를 갖추어 그 作品에 整合된다. 이 때에 文學的인 影響은 참다운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受惠는 부분적인 模寫에서 극단적인 剽竊에 이르는 粗惡한 影響으로 轉落된다.

한 作家가 다른 作家, 특히 外國의 作家에게서 어떤 影響을 받아서 作品을 썼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評者들은 흔히 그것을 그 作家의 創作性의 결핍이나 主體性의 결여로 보고, 그가 쓴 作品을 模作으로 규탄하는 愚昧한 일을 거듭해오고 있다. 그러나 실은 作品 속에 受容된 外來的인 影響이 많은적든 간에 그것은 그 作品의 創作性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創作性은 作家가 무엇을 가지고 썼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썼느냐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韓國의 現代詩에 受容되었으리라는 心證이 가는 外來的인 影響들을 검토할 때에 빈번히 야기되는 기본적인 곤란은 事實證據의 결여이다. 대개 우리나라의 作家들은 그들이 발표한 作品의 동기, 배경, 제작경위, 기간, 受惠관계, 自評등을 솔직하게 記錄하여 文書로 남기거나 가까운 親知에게 便紙로 남기는 부수적인 일을 앓는 편이다. 이에 더하여, 80년 남짓한 韓國 新文學의 作品과 資料들이 많이 亡失되었거나 所在不明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不利한 여건들은 韓國文學의 比較연구나 影響연구를 심히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韓國 現代詩의 形成過程에 관한 연구들만 하더라도 여러 異說을 亂立시켜 定說을 보기 어려웠던 사실을 우리는 보아왔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韓國 現代詩의 形成過程에 受容되었으리라고 간주되는 重要한 外來的인 影響중에서 歐美的인 것들을 美國的인 影響을 위주로 하나씩 點檢하여 客觀化시킴으로써 事實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게 하고 虛僞나 幻想으로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外來的인 影響과 韓國 現代詩의 참다운 특성과 성격을 파악하는 일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II

韓國 初期 現代詩가 受容한 外來的인 影響으로 가장 중요시되고 가장 높게 평가되어온 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基督教 讚頌歌의 影響이다. 基督教의 影響이 歐美的인 것이냐 아니면 亞細亞的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外來的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影響의 移入 경로에서 美國的인 인위작용이 그것의 번역, 전파, 예배의식, 성경과 찬송가의 보급과 가르침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初期 現代詩를 論評한 學者들중에는 기독교의 讚頌歌가 開化期의 唱歌와 歌詞의 母體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전자가 후자에게 큰 影響을 끼쳤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白鐵氏는 「國文學全史」에서 『...우리는 본시 唱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할 때에 그것이 처음에는 기독교의 「찬송가」에서 왔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¹⁾ 金秉喆 教授는 「開化期(1890—1900) 詩歌史上에 있어서의 初期 韓國讚頌歌의 位置」라는 論文에서 初期 韓國讚頌歌가 初期 愛國歌類에 끼친 影響을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즉, 「독립신문」에 발표된 愛國歌類를 그 形態面에서 살펴보면, 이 愛國歌類가 朝鮮時代의 時調나 歌辭와는 달리 行區分이나 聯區分이 생겨나 있다는 점과, 둘째로 愛國歌類의 길이가 歌辭의 경우처럼 무한정 길지 않고 대개 10聯 내외로 되어 있고 歌唱을 전제로 했다는 점과, 셋째로 그 數가 몇편 안되지만 愛國歌에는 後歛句가 붙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詩形上의 變化가 初期 韓國讚頌歌에서 온 影響이라고 主張하고 있다.²⁾ 이와 비슷한 見解는 많은 國內 學者들의 共通的인 見解이며, 사실상 初期 韓國讚頌歌가 開化期의 詩歌에 큰 影響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는 見解는 지금까지 제출된 바 없다. 金 教授의 이 論文은 開化期의 詩歌와 初期 韓國讚頌歌 사이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詩形上의 類似性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그 사이의 影響關係를 論證하려고 애쓴 가장 注目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金 教授의 見解의 타당성을 한가지씩 檢討해 나가기 전에, 影響연구의 方法論上의 제기될 수 있는 몇가지 문제점들을 지적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첫째로 A와 B 사이에서 발견되어진 類似性이 아무리 현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둘 사이의 影響關係를 단언할 수 없다는 사실과, 둘째로 그러한 類似性이 B에게 있어서 과연 異質的이나 하는 것을 다각적이고 광범위하게 檢討해야 하며, 셋째로

1) 白鐵, 李秉岐 共著,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72, pp. 232-33.

2) 金秉喆, 「開化期(1890—1900) 詩歌史上에 있어서의 初期 韓國讚頌歌의 位置」, 「亞細亞研究」 Vol. 14, No. 2 (通卷 42호), 亞細亞問題研究所, 高麗大學校, 1971, pp. 49-106.

그 類似性이 B에 있어서 異質의 일 때에만 일단 影響關係를 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事實證據와 情況證據 및 參考資料를 가지고 뒷받침하고 나아가 立證할 수 있다는 것이다.

金 教授의 見解에로 돌아가건대, 開化期의 愛國歌類는 詩形上 朝鮮時代의 傳統詩歌인 時調나 歌辭를 닮지 않고 初期 韓國讚頌歌를 닮은 점이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닮은 점들이란 앞서 언급한 3가지인데, 과연 그 3가지의 類似性들이 韓國의 詩歌史上 異質의 이냐 하는 것은 명확히 가려야 한다. 만일에 이런 類似性들이 우리나라에 讚頌歌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의 詩歌 속에 있었던 것이라면 讚頌歌가 끼친 影響이란 論據는 극히 희박해질 수 밖에 없다.

먼저 3가지의 詩形上의 類似性 중에서 첫째 行區分과 聯區分을 살펴보기로 한다. 韓國의 傳統詩歌인 時調와 歌辭는 과거에 行區分이나 聯區分이 表面上에 나타나지 않는 연속적인 行으로 표기되거나 인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기상의 인습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時調나 歌辭가 內面的으로도 行區分이나 聯區分이 없다는 證據는 되지 못한다. 時調만 하더라도 初, 中, 終章으로 나뉘어짐은 물론 지금에 와서는 연속적인 行이 아니라 3개의 聯의 형식으로 인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時調는 이미 허다한 時調集에서 각 章이 二行인 二行連句를 이루도록 인쇄되고 있다. 韓國에 기독교의 讚頌歌가 생겨나기 이전인 1884년에 출판된 漢山居士의 「漢陽歌」를 보면 開化期의 愛國歌類와 類似한 詩行과 行區分이 명확하게 인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漢陽歌」와 愛國歌類에 다른 점이 있다면 詩形上으로 「漢陽歌」는 길이가 길다는 것과 內容上으로 主題와 素材가 다르다는 것 뿐이다.

한편 우리가 初期 韓國讚頌歌의 聯의 형태를 보면, 讚頌歌마다 형태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895년에 출간된 「讚頌歌」에 수록된 81편의 讚頌歌를 살펴보면, 제1장 「찬미하느님복근원」은 2개의 聯이 각기 4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行은 8음절로 되어 있는 반면, 제3장 「내일만음성잇스면」은 4개의 聯이 각기 4行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각 聯의 첫 行과 셋째 行은 8음절, 둘째와 넷째 行은 6음절로 되어 있다. 제8장 「높고신성던」은 4개의 聯이 각기 8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行은 대개 5음절이지만, 각 聯의 다섯째와 일곱째 行이 6음절로 되어 있다. 제44장 「만세반석열니니」는 4개의 聯이 각기 6行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 行은 7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독립신문」에 발표된 26편의 愛國歌類(혹은 宋敏鎬 教授가 開化詩라 호칭하는) 詩歌들은 1편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7언 2행 4음절로 된 聯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각 行은 2개의 4음절 群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외된 1편도 사실은 聯의 형태가 여타의 詩歌들과 거의 마찬가지로 다만 각 行이 2개의 4음절 群이 아닌 4음절과 3음절 群으로 되어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愛國歌類의 詩形은 讚頌歌의 歌詞의 形과는 거리가 멀고 漢山居士의 「漢陽歌」의 詩形과 일치한다.

愛國歌類의 길이가 朝鮮時代의 歌辭처럼 길지 않고 대개 10聯 내외로 짧아진 것이 讚頌歌의 影響 때문이라는 둘째 類似性은 뒤에 논평하기로 하고, 우선 셋째 類似性인 後歛句를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독립신문」에 발표된 26편의 愛國歌類에는 단 한 편만이 後歛句를 가지고 있다.³⁾ 그러나 설사 後歛句가 讚頌歌에서 온 影響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치더라도 그 비중은 대단치 않다. 그런데 문제는 愛國歌類에 나타난 이 後歛句가 반드시 初期 韓國讚頌歌단의 影響으로 생겨난 것이냐 아니면 韓國의 傳統詩歌의 흐름 속에도 後歛句와 反復句가 있어 왔느냐 하는 것이다. 최병현의 愛國歌의 後歛句는 讚頌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後歛句와 類似하다. 그러나 韓國의 傳統詩歌에도 反復句가 들어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樂章歌辭에 실려 있는 朝鮮時代 作인 「感君恩」은 4개의 聯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聯의 구성은 2개의 行과 3행의 後歛으로 되어 있다. 첫 聯만을 인용한다.

1. 四海바닷 기찍는 달줄로 자히리어니와
 님의 德澤 기찍는 어닌줄로 자히리잇고

〈後 叙〉

享福無疆하샤 萬歲를 누리소서
享福無疆하샤 萬歲를 누리소서
一竿明月이 亦君思이 샷다

이렇게 보면, 後歛이란 形式도 우리의 傳統詩歌에 있어서 전혀 異質

3) 後歛句가 있는 愛國歌는 최병현 作으로 「독립신문」 1896년 10월 31일자에 발표되었다.

의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90년대의 開化期에 쓰여진 愛國歌類에 後歛句가 들어있는 詩歌가 한 편 눈에 띈다고 해서 그것이 初期讚頌歌의 影響 때문만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최병헌의 愛國歌에 들어있는 後歛句가 讚頌歌에서 온 受惠이며 우리의 傳統詩歌에 있어온 反復句와는 전혀 별개임이 立證되더라도, 이 일이 開化期의 韓國詩歌의 詩形과는 거의 관계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後歛句는 1890—1910년 사이에 발표된 수백편의 詩歌들 중에서 최병헌의 것을 제외한다면 단 한 편 밖에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期間에는 수백편의 詩歌가 「독립신문」 이외에 「帝國新聞」(1898—1910), 「皇城新聞」(1898—1910), 「大韓日報」(1905—1906), 그리고 「大韓每日申報」(1905—1910) 등의 新聞들과 「西友」(1906—1907), 「夜雷」(1907), 「大韓留學生會報」(1907), 「大韓俱樂部」(1907), 「大韓學會月報」(1908), 「西北學會月報」(1908—1910), 그리고 「大韓興學報」(1909)등에 나누어 발표되었다. 그런데 後歛句가 붙어있는 것은 김유택의 「勸學歌」 밖에는 없다. 後歛句만을 인용한다.

〈후렴〉 힘을습시다 힘들습시다
공부위하여서 힘들습시다
나라위하여서 힘들습시다⁴⁾

初期讚頌歌가 開化期의 詩形에 後歛句가 생겨나게 한 影響을 입혔을 것이라는 見解는 그 가설부터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을 바로 잡는다면, 「開化期에 발표된 수백편의 詩歌들은 거의 전부가 後歛句가 없다. 後歛句가 들어있는 詩歌는 2편 정도인데, 이 2편에 들어있는 後歛句는 韓國의 傳統詩歌에 있어온 反復句와 初期讚頌歌에 흔히 있는 後歛句의 影響을 입은 듯하며, 讚頌歌가 時期的으로 근접해 있으므로 讚頌歌의 影響이 더욱 커 보인다」가 될 것이다.

開化詩歌에 受容된 初期讚頌歌의 影響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影響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外來的인 影響이 아닌 傳統詩歌에서 傳受되어 내려온 것은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것은 開化詩歌의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서 혹시 詩歌의 내용에 基督教의 聖書나 讚頌歌에서 受容했을 수 있는 受惠의 根據

4) 김유택의 勸學歌, 「帝國新聞」(2443호), 1907년 6월 29일자 제1면 참조.

를 찾아봄으로써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되면 그런 影響이 聖書에서나 讚頌歌에서나라는 구분은 거의 가리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基督敎的인 影響이란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新聞들과 學會誌들에 발표된 수백편의 開化期 詩歌 중에서 基督敎的인 影響을 受容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내용을 전부 가려낸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 1. 우리나라 흥하기를
 비노이다 하느님의

「독립신문」 제1년 제3호,
최돈성 작 (1896. 4. 11.)

- 2. 하느님의 성심기도
 국티평화 민안락을

 룩신세상 잇슬새에

「독립신문」 제1년 제47호,
달성회당 예수교인등 작 (1896. 7. 23.)

- 3. 우리나라 위하랴면
 하나님의 기도하야

「독립신문」, 제1년 제59호,
정동비지학당학원 문경호 작 (1896. 8. 20.)

- 4. 경축하세 경축하세
 하느님의 경축하세

「독립신문」, 제1년 제71호,
김기범불음 (교인들의 경축시), (1896. 9. 17.)

- 5. 텃디만물 창조후에
 오쥬구역 텃디이라

「독립신문」, 제1년 제90호,
최병헌 작 (1896. 10. 31.)

- 6. 텃디조판 된연후에
 일월이 성겨잇고

 일월이 성긴후에
 만물이 번성하코

만물이 성후후에
사람이 귀하였고
.....

그공을 말하진디
하나님의 조화시라

조화로다 조화로다
지공무스 훈아님의

억천년 억만년이
무궁하신 조화로다

초목금슈 만물들을
닉시기도 하날이오

업시기도 하날이오
홍케흠도 하날이오

망케함도 하날이니
.....

하나님의 뜻을받아
만민을 교화하리
.....

그나라를 홍케함도
지공하신 하날이오

「大韓每日申報」,
鄭老訪問醫生 作 (1906. 1. 7. 제3면)

7. 우리더한 동포형제
추호반점 낙심마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복할날 갓가왔네

「大韓每日申報」,
리선경 작 (1906. 9. 3. 제3면) 「閔忠正血竹歌」題下

8. 聖經賢傳 身本숨아
.....

「大韓每日申報」
(1907. 3. 10. 제4면). 「廣告」

대략 3백여편 가량 되는 開化期의 詩歌들 중에서 위에 제시한 8개의

詩句에 基督敎的인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을 보아도 開化期의 詩歌가 基督敎의 影響을 그 내용면에 다소 受容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즉, 初期 讚頌歌가 과연 開化期의 詩形에 것처럼 큰 影響을 끼쳐서 그 詩形이 朝鮮時代의 傳統時歌에는 없던 새로운 詩形으로 변모하기에 이르렀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詩形의 길이를 제외한 두가지의 類似性들, 즉 行區分 및 聯區分과 後歛句에 대해서는 이미 거의 否定的인 證據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1896년에 發刊된 「독립신문」을 비롯하여 여러 新聞과 會誌에 발표된 詩形의 正體가 과연 무엇이나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筆者는 지금까지 여러 學者들이 主張하거나 간주해온 見解를 否定하는 立場에 섰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愛國歌類를 비롯한 開化詩歌의 詩形이 朝鮮時代의 傳統詩歌인 時調와 歌辭에서 傳受된 詩形이 아님은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學者들이 이 새로운 詩形을 初期 讚頌歌나 아니면 西洋唱歌의 影響이 朝鮮時代의 傳統的인 律格인 4—4나 3—4調에 결들여져서 생겨난 開化期의 產物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筆者는 이 詩形에 대하여 전적으로 다른 意見과 根據를 갖고 있다. 만일 筆者의 主張이 옳다고 認定된다면,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學者들의 主張은 파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지금까지 進行되어온 韓國現代詩의 濫觴과 形成過程에 관한 考察이 새로운 觀點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선 開化期의 愛國歌類의 詩形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를 느낀다. 그러기 위하여 筆者는 「독립신문」에 맨 처음 발표된 愛國歌類의 하나인 「서울 순청골 최돈성의 글」(1896. 4. 11.)을 인용한다.

대조선국 건양원년
조주독립 깃비호세

턴디간에 사롭되야
진흥보국 메일이니

님군의 충성호고
정부를 보호호세

인민들은 사랑호고
나라기를 놉히달세

나라도을 생각으로
시종여일 동심호세

부너경더 지식교육
사롭마다 흘거시라

집을각기 흥호라면
나라몬져 보절호세

우리나라 보절호기
자나씨나 생각호세

나라위히 죽는죽업
영광이제 원한없네

국태평가 안락은
스릉공상 힘을쓰세

우리나라 흥호기를
비늬이다 하느님씩

문명지화 열년세상
말과일과 又게호세

아모것도 물은사름
감히일언 호옵내다

위에서 보는 바 대로, 이 詩形은 時調나 歌辭와는 달리 엄격한 4-4 調의 行이 2번 거듭된 2行連句가 聯처럼 區分되어 있는 독특한 詩形이다. 詩歌의 길이는, 비교적 짧은 것이 이런 2行連句를 4개 포함하고 있고 긴 것은 48개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詩歌의 길이는 8行에서 96行까지 걸쳐 변하고 있다. 다음에 인용하는 것은 「북서 순검 윤태성 의국가」(1896. 7. 18.)이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조슈독립 즐겁도다

동포형메 합심호여
부국강병 호여보세

부국강병 호량이면
영웅열스 모화다가

실상지조 시험호여

동방메일 빛내보세

스롱공상 업을지어
스시장춘 즐겨보세

우리형메 남녀간에
성덕을 축슈호세

남즈너즈 교휴하여
고등학교 호여보세

이리더리 호여보면
모든일이 경스로다

성각스록 즐겁도다
동국에 형메들아

부더부더 동심하여
보국이민 호여보세

이처럼 엄격한 4—4 調의 律格으로 시종된 詩形은 韓國의 傳統詩歌에서 거의 눈에 띈 일이 없다. 그러나 이 詩形이 과연 새로운 詩形인가? 먼저 이 詩形의 特徵을 살펴보면, 엄격한 4—4 調 외에도 여러가지 反復法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 인용한 최돈성과 윤태성의 愛國歌類만을 보더라도 「~하고 ~하세」나 아니면 「~하여 ~해보세」라는 식의 增進的 反復(incremental repetition)이 거의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이 두 사람의 詩歌뿐만 아니라 「독립신문」에 발표된 26편의 愛國歌가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文體上의 特徵이다. 이런 增進的 反復 외에도 윤태성의 愛國歌의 첫머리에서 보는 바대로 音律的 反復(rhythmic repetition) 등이 愛國歌類에서 흔히 눈에 띈다. 이 詩形의 단순하고 기계적인 4—4 調의 律格과, 2行連句와 暗誦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각종 反復法 중에서도 특히 增進的 反復이 이 詩形의 特性임을 알 때, 우리는 이 詩形이 韓國의 詩歌의 正統的인 흐름과 並行해 온 口傳文學의 흐름에 속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이 詩形이 口傳文學 속의 韻文의 흐름 속에 있어 왔느냐 하는 것을 證明하기 위하여 筆者는 任東權氏가 수집한 韓國民謠와 趙東一教授가 수집한 敘事民謠를 살핀 결과 開化期의 詩形이 하등 새로운 開化期 詩形이 아닌 口傳文學의 敘事民謠의 詩形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

었다.⁵⁾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基督教의 初期讚頌歌 또는 西洋唱歌의 影響을 받아서 생겨난 開化期의 새로운 詩形이라고 잘못 判斷되어온 詩形이 다름아닌 우리의 선조가 대대로 입에서 귀로 물려준 우리나라 고유 的 叙事民謠의 詩形임을 알 때, 우리는 現代文學내지는 現代詩만을 눈앞에 두고 살피는 近視眼的인 愚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인용하는 것들은 모두 옛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民謠 중에서 叙事民謠에 해당하는 수많은 民謠들 중에 몇몇 본보기이다.

1.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노던달아
 저달임재 누구인고
 방이방아 달일네라
 방이방아 어테가고
 저달떨줄 지모르노
 동넘어 침을두고
 무내점복 손에들고
 밤으로는 자러가고
 낮으로는 놀로가네
 큰어마님 거동보소
 의씨같은 딸애길랑
 품에품어 재기놓고
 덕석걸은 아들에게
 젖을물리 재이놓고
 조박머리 쪼바꽃고

任東權, 「韓國民謠集」,
 「妾謠」 1, pp. 110-12.

2. 너를두고 가긴가나
 알둔새의 녀이로다
 가다한들 아조가며
 아조간들 잇을소나

 만권시서 불놓을때
 이별잇자 왜두었노
 이별잇자 불을놓고
 만날봉자 쓰러므나

5) 任東權, 「韓國民謠集」, 東國文化社, 1961 및 趙東一, 「叙事民謠研究」, 啓明大學出版部, 1970 참조.

.....

同上書, 「離別謠」 4, p. 120.

- 3. 울도담도 없는집에
시집삼년 살고보는

시어머니 하신말씀
애야아가 며늘아가

진주양반 불러거든
진주남강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가니
돌도 좋고 물도 좋은데

오동통통 두드리니
어디에서 말굽소리

요란하게 나는구나
옆눈으로 살펴보니

진주남강 길고긴데
하늘같은 갓을쓰고

구름같은 말을타고
못본척을 지나가네

同上書, 「男便謠」 4, p. 122.

- 4. 한살먹어 어마죽어
두살먹어 아바죽어
세살먹어 조모죽어
네살먹어 조보죽어
그럭저럭 다죽고야
나하나만 남았구나
.....

趙東一, 「叙事民謠研究」 4, p. 268.

이처럼 엄격한 4-4調의 律格이 기계적으로 거듭되는 詩形이 다름아닌 우리의 고유한 叙事民謠의 기본적인 詩形인 것이다. 이 詩形은 오랫동안 口頭로만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記述되지 않고 있다가 今世紀에 들어와서 수집되고 活字化되어 定着되었다. 위에 세번째로 인용한 「男便謠」 4는 二行連句의 分聯마저가 開化期の 愛國歌類의 詩形과 일치한다. 위에 인용된 그 나머지 叙事民謠들도 수집자들이 連續體라 생각하

거나 또는 편의상 行들을 연속적으로 記述했을 것이나 실은 이 叙事民謠의 詩形은 二行連句의 特性을 內在的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⁶⁾

叙事民謠는 全國各地에 널리 보급되고 一般大衆의 마음 속에 깊이 간직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庶民文學의 한 手段이다. 開化期를 맞이하여 이 叙事民謠의 詩形이 북받쳐 오르는 開化思想과 口號를 담아 表現하는 그릇이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開化期 詩歌의 詩形은 우리에게 異質的이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다만 開化詩歌의 내용상에 基督敎的인 色彩가 엿보이는 구절이 간혹 있을 뿐이지, 이 詩形 自體가 初期讚頌歌의 影響으로 생겨난 새로운 詩形은 결코 아니다.

口傳的인 叙事民謠의 詩形이라는 틀 속에서 開化期에 詩人이 아닌 一般 사람들이 한편씩 지어낸 「독립신문」등의 愛國歌類는 그 당시 活字에 힘입어 表記는 되었으나 文語體가 아닌 口語體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叙事民謠가 가지고 있던 口傳的인 特性들을 견지하고 있다. 叙事民謠와 愛國歌類의 차이란 후자의 내용이 「자주독립」「남녀평등」「남녀교육」등 開化期의 口號를 담은 것이다.

이러한 開化期의 詩歌들은 朝鮮時代의 詩調나 歌辭와는 詩形과 內容이 전혀 다르다. 朝鮮時代를 거쳐 내려온 우리나라의 正統詩歌의 흐름에 대한 認識이 있는 사람은 開化期의 詩歌가 이 흐름에 속해 있지 않음을 직감할 것이다. 朝鮮時代に 지어진 時調와 歌辭 각 1首와 開化期의 愛國歌類 2편을 대비한다.

冬至入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여 春風 니불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黃 眞 伊

江湖에 病이깁피
竹林의 누엇더니
關東 八百里에
方面을 맛디시니
어와 聖恩이야
가디록 罔極하다
延秋門 드리드라

6) 皮千得 沈明鎬, 「英美의 Folk Ballad와 韓國 叙事民謠의 比較研究」, 「研究論叢」2輯, 서울大學校 敎育會, 1972. 3., pp. 169-238 참조.

慶會南門 바라보며
下直코 물러나니
玉節이 앞뒤셨다
.....

「松江歌辭」중의 「關東別曲」

봉축하세 봉축하세
아국태평 봉축하세

즐겁도다 즐겁도다
독립즈쥬 즐겁도다

꽃피여라 꽃피여라
우리명산 꽃피여라

향기롭다 향기롭다
우리국가 향기롭다

열떡열나 열떡열나
부국강병 열떡열나

열심하세 열심하세
흥군의국 열심하세

진력하세 진력하세
스릉공상 진력하세

빛나도다 빛나도다
우리국괴 빛나도다

.....

던경탁 「이국가」, 「독립신문」 제1년
제19호 (1896. 5. 19.)

여보시오 동포님네
이니말삼 들어보오

출어세상 일평성에
허고갈일 무엇이오

효메충신 근본이오
사농공상 스업일세

우리인성 뭍갓하니
허송세월 엇지홀가

부성모욕 놈은은덕
효당갈력 홀거시오

대한신민 되었시니
충죽진명 하여보세

.....

朴生「寄書」,「帝國新聞」三面,
(1903. 4. 15.)

開化期의 詩歌는 위에서 보는 바 대로 朝鮮時代의 叙事民謠의 한 延長된 흐름인 것이다. 口傳文學에 속한 叙事民謠 자체가 文學的이거나 民俗學的인 價値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 文學藝術性은 正統文學의 詩歌의 흐름인 時調나 歌辭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開化期의 愛國歌類를 비롯한 수 많은 詩歌들은 叙事民謠라는 그릇에다가 社會集團의인 감정(community feelings)과 標語와 口號(slogans and passwords)를 담아서 외친 粗雜한 詩歌로서 藝術性이 박약한 一種의 雜歌들인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開化詩歌에 담겨있는 開化思想이나 標語가 雜스럽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들이 叙事民謠의 틀에 넣어져서 口號처럼 불려진 樣相이 文學藝術性을 결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략 1890년대를 開化期로 본다면 이 時期는 社會史的으로는 開化思想이 高調된 重要하고 훌륭한 時期였지만, 文學藝術史的으로는 朝鮮時代를 거쳐 온 正統詩歌가 쇠퇴되고 口傳文學 中の 叙事民謠가 活字의 힘을 입어 一時的으로 社會를 풍미했던 時期이다. 이러한 叙事民謠의 詩形에 당시의 開化思想을 담은 愛國歌類를 가지고 「開化詩」라 하여 높이 評價한다든지 이 詩歌가 朝鮮의 傳統詩歌인 時調나 歌辭에서 現代詩로 變遷하는 過程에 생겨난 첫 所産으로 본다면 西洋唱歌나 初期讚頌歌의 影響으로 생겨난 새로운 形의 詩歌로 보는 모든 既成의 見解는 잘못된 것이다.

앞서 論評을 보류했던 愛國歌類의 길이에 관한 문제는 자연히 해소된 셈이다. 왜냐하면 愛國歌類의 詩形이 叙事民謠에서 온 것이니만큼 그 길이는 朝鮮時代의 기다란 歌辭와는 달리 叙事民謠에서처럼 數個聯에서 數十聯에 이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初期讚頌歌가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시작한 때를 1892년으로 본다면 4년 후인 1896년에 처음에는 불과 30편 정도로 약보없이 퍼냈던 初期

讚頌歌가 韓國의 傳統詩歌의 흐름을 가로막고 새로운 開化期의 詩形을 全國 각지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대두시켰으리라는 가설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

Ⅲ

朝鮮時代를 거쳐 온 韓國의 傳統的인 詩形이 실제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금세기에 접어든 이후이다. 1908년에 창간된 崔南善의 「少年」誌를 전후하여 처음으로 韓國의 傳統的인 詩歌가 오랫동안 몸담아온 4—4調나 3—4調의 基本 韻律로 이루어진 詩形에서 벗어나 5—5調나 7—5調와 같은 律格을 시험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律格과 聯의 속박을 허물어 自由詩와 散文詩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 대략 1910년 전후의 일이다. 이 時代의 詩歌에서 主導的인 역할을 한 사람은 물론 六堂 崔南善이다. 여기서서는 우선 7—5調의 由來에 대하여 살펴기로 한다. 왜냐하면 7—5調가 明治 15년에 日本에서 新體詩의 基本 律格으로 재흥하기에 이른 이면에는 한 美國 學者의 간접적인 기여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日本 新體詩의 시초는 1882年(明治 15年) 당시 東京大學의 교수들인 外山正一, 矢田部良吉 및 井上哲次郎의 三人이 同選하여 丸善書店을 통하여 그해 7月(실제로는 8月)에 刊行한 「新體詩抄」 初編이라고 알려져 있다. 「新體詩」라는 명칭 자체도 이들 중의 井上가 처음 제의하여 同選人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다.⁷⁾

그러나 필자는 日本 明治時代의 翻譯文學을 살펴본 중에, 日本 「新體詩」가 1882년에 발표되기 적어도 3年 전에 한 先驅者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先驅者에 앞서서 「新體詩」의 희미한 前兆라 할 수 있는 刊行物들이 日本에 여럿 있기는 했다. 예를 들면, 明治 이전의 西洋詩和譯이나 翻譯物 또는 戲作物을 비롯하여 福澤諭吉의 「世界國盡」(明治 2年, 1869年), 假名垣魯文의 「世界都路」(1872), 福澤의 「暗誦十詞」(1873), 加藤熙의 「萬國歌盡」(1877), 田口鼎轉의 「日本の唱歌」(1879), 文部省編 「小學唱歌集」 初纂(1881)등이 그것들이다.⁸⁾

그러나 앞서 말한 실질적인 先驅者인 西周는 1870년대에 日本 文部省

7) 藤村作 編, 「日本文學大辭典」(增補改訂) 第4卷, 新潮社版, 1950(昭和 25年), p. 189 참조.

8) 下中彌三郎 編, 「大百科事典」 第7卷, 平凡社, 1932(昭和 7年), p. 522 참조.

의 위촉으로 美國人 교수 Joseph Haven(1816—1874)의 著書 *Mental Philosophy*를 日本語로 翻譯하게 되었고, 이 翻譯을 통하여 3년 뒤에 나온 「新體詩抄」의 先驅的인 役割을 했던 것이다. Joseph Haven은 Massachusetts주 출신으로 Amherst 大學을 졸업하고 그 大學에서 哲學을 강의한 후 Chicago 大學으로 옮겨가서 神學과 哲學을 강의하고 牧師職도 겸임했던 당시의 뛰어난 學者였다. 日本 文部省은 그의 著書 *Mental Philosophy*를 選定하여 西周에게 번역을 시켜 大學教材로 삼기로 했었다. 西周 (1829—1897)라는 日本 學者는 일찌기 和蘭 Leiden 大學에 留學하여 西洋學門으로 該博한 知識을 쌓았고 귀국 후에는 同人誌 「明六雜誌」 (1873)등에 文學論을 발표하기도 하고 西歐詩를 소개하기도 했다. Joseph Haven의 *Mental Philosophy* 上, 下卷의 日本語譯 「心理學」이 明治 12년에 완성되었으나, 上卷만은 明治 9년에 이미 出刊되어 있었다. 이 著書의 내용은 오늘날의 心理學이라기 보다는 人間の 心的인 활동을 思辯的으로 풀이한 일종의 哲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著書에서 Joseph Haven이 人間の 心的인 활동을 智, 情, 意로 나누어 풀이해 나가는 중에 西歐詩에서 많은 인용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 著書가 인용 소개한 西歐의 詩人들은 Homer, Virgil, Shakespeare, Milton, Butler, De Quincey 등 외에 많은 詩의 단편들이 있다. 西周는 이 西歐의 詩들을 번역할 때 日本의 어떤 詩形을 적용해야 하느냐에 적지 않은 고민을 한 모양이다. 당시에는 물론 西歐의 詩를 번역할 때 그 詩를 담을 詩形을 반드시 찾아서 적용해야 했으며 詩形의 고려 없이 自由詩로 번역한 다든지 하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西周는 결국 *Mental Philosophy*에 들어있는 西歐의 詩들에 漢詩나 和歌의 律調와 詩形을 번갈아 採用하는 실험을 해냈던 것이다.

Joseph Haven이 Shakespeare의 *Henry IV*에서 인용한 다음 구절을 西周는 和歌의 7—5調를 기용하여 번역하였다. 이것이 日本의 옛 律格인 7—5調가 明治時代에 와서 「新體詩」에 전적으로 쓰이게 된 첫 발걸음이었다.

Breathless and faint, leaning upon my sword,
 Came there a certain lord, neat and trimly dressed,
 Fresh as a bridegroom, and his chin new reaped
 Showed like a stubble-land at harvest-home.

He was perfuméd like a milliner,
 And 'twixt his finger and his thumb he held
 A pouncet-box, which ever and anon
 He gave his nose and took't away again—

—Henry IV, Part I, Act I, Sc. iii, 11. 32-9

劍杖ヲニ。松蔭ノ。
 巖撐ヘテ。吐息ツク。
 時哉見ユル。若武者ハ。
 是ハ抑軍ノ。使カヤ。
 見レハ衣ノ。美麗サ
 新郎カトモ。訝マタル。
 其鬚髻ノ。新剃ハ。
 秋田ヲ刈レル。刈稻ノ。
 齊ヘル様ニ。サモ似タリ。
 近ヅク儘ニ。馨フ香ハリモ。
 時叔貨鋪ノ。娘カモ。
 指ニ挾メル。香盒ノ。
 何爲ナリヤ。時々ニ。
 鼻ニ翳シテ。嗅クメルヘ。⁹⁾

「新體詩抄」의 編著者 중의 1인인 井上哲次郎은 「西周哲學論文集」(麻生編)의 序文에서 西周가 新體詩에 기여한 先驅的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柳田泉도 「明治初期翻譯文學の 研究」에서 西周 때문에 日本 新體詩의 시초를 外山正一 등에게서 西周에게로 가져가야 하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전제하고 西周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外山正一은 東京大學에서 西周譯 「心理學」을 강의한 일이 있고, 이 번역서는 東京大學의 哲學心理學 분야의 참고서로 지정되어 있었다. 外山正一등이 西周에게서 新體詩의 詩形에 대한 暗示나 影響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西周는 「新體詩抄」가 나오기 3년 전에 이미 이에 대한 한 先驅的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美國學者 Joseph Haven의 著書 *Mental Philosophy*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908년 무렵에 대두되어 1910년 무렵에 크게 流行한 韓國 新體詩歌의 7—5調 내지는 5—7調의 律格이 본래 우리 고유의 것이냐 아니면 日本

9) 柳田泉, 「明治新體詩の先驅 西周の 功績」, 「明治初期翻譯文學の 研究」, 「明治文學研究」5, 春秋社, 1961 (昭和 36年), pp. 258-59.

의 新體詩에서 온 것이냐 하는 論難이 거듭되고 있다. 1910년을 전후한 초창기의 韓國新體詩의 7—5調가 처음 崔南善에 의하며 채용되고 널리 소개되었음을 인정한다면, 이 무렵의 7—5調의 律格은 역시 日本의 新體詩에서 왔을 것이라는 心證이 간다.

첫째로, 7—5調는 우리의 正統詩歌나 口傳歌謠에서 찾아볼 수 없는 異質的인 律調이다. 7—5調의 7이 흔히 3—4調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7—5調가 傳統的인 律調라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7과 5의 結合인 것이다. 필자가 살핀 범위 내에서는,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서 이처럼 7과 5가 엄격하게 결합된 律調는 韓國의 傳統詩歌에 없었다. 7—5調가 일단 우리의 詩歌에 대하여 異質的이라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外來的인 影響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1908년에 이미 판매되고 있던 崔南善作「京釜鐵道歌」가 7—5調로 된 첫번째 唱歌라 여겨지는데, 이 책에 대하여 「少年」誌에 실린 廣告는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

此書는我國의大動脈인京釜沿路의名勝古蹟을詠歌하여써南半部の地理上形便과
歷史上事實을敎示코자함이니그調는新하고도雅하며子味는饒하고도濃한지라不久
에出現한『京義鐵道歌』와共히少年諸子の玩誦치아니치못할好書라 . . . 10)

「京釜鐵道歌」의 첫 절만을 인용한다.

우렁타게토하난 汽笛소리에
南大門을등디고 썩나나가서
쌀니부난바람의 형세갓흐니
날개가딘새라도 못싸르겟네

崔南善은 晩年에 이르러 이 鐵道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光武八年(西年一九〇四年)에 京釜鐵道가 開通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京釜鐵道歌를 짓고 싶었다. 그것은 내가 日本留學時 日本서 汽車開通에 對한 唱歌가 많이 流行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첫 句節이 「우렁타게 토하는 기적소리에」라고 되어 있는 約三十節에 達하는 京釜鐵道歌를 지어 이것을 出版하여 全國에 펼쳤다. 이 唱歌는 七, 五調로 된 最初의 唱歌인데 이 後로 부터 四, 四調의 唱歌는 漸漸 그 姿體를 감추고 七, 五調, 六, 五調 내지

10) 「少年」誌 創刊號, 新聞館, 1908. 11. 1. 表紙廣告 참조.

八, 五調의 唱歌가 그것을 代身하게 되었다.¹¹⁾

위의 진술에는 한가지 잘못된 데가 있다. 그것은 「約三十節에 達하는 京釜鐵道歌를 지어」라 한 것인데 실은 「京釜鐵道歌」는 모두 합쳐 67節이나 된다. 문제는 위의 진술에서 崔南善은 「내가 日本留學時 日本서 汽車開通에 對한 唱歌가 많이 流行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1904년에 京釜鐵道가 開通되자 「京釜鐵道歌」를 짓고 싶어져서 결국 이 노래를 作詞했다고 한 대목인데 日本의 鐵道歌에서 崔南善이 受容한 受惠가 실제로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그가 우리의 鐵道歌를 짓고 싶은 동기만을 얻었느냐, 아니면 日本의 鐵道唱歌의 律格인 7-5 調까지 곁들여 受容했느냐, 또는 한걸음 더 나아가 「京釜鐵道歌」에 附曲되어있는 스코틀랜드의 民謠曲인 “Comin’ Thro’ the Rye” 마저 함께 가져왔느냐 하는 것은 가릴 필요가 있다.¹²⁾ 필자는 崔南善의 「京釜鐵道歌」가 日本의 鐵道唱歌에서 作詞의 동기와 문체와 7-5 調를 受容했음이 사실이며 附曲마저 그대로 가져왔으리라고 생각한다. 崔南善의 「世界一週歌」(1914년 10월 「青春」 제1호)가 日本의 「世界一週唱歌」에서 受容한 受惠도 대체로 「京釜鐵道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京釜鐵道歌」는 1908년 3월에 出刊되었는데, 그 다음 달인 4월에 發行된 「大韓學會月報」 제3호에는 崔南善이 大夢崔라는 筆名으로 「그의 손」이라는 詩를 엄격한 7-5 調로 써서 발표하고 있다.¹³⁾ 7-5 調는 그 이후로 崔南善의 많은 唱歌에 受容되었고 崔南善 이외의 作詞者들도 7-5 調를 採用하기에 이르렀다. 「創造」誌(제5권 1920년 3월호)에 실린 金素月の 詩 다섯편 중에 둘째와 셋째인 「夜의 雨滴」과 「午過의 泣」도 7-5 調이다. 金素月은 그 이후로 7-5 調의 여러가지 變形을 시험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7-5 調가 韓國의 傳統詩歌에서 異質的이 아닐 것이라는 見解를 내세우기 위하여 몇가지 7-5 調로 보이는 詩行을 麗謠에서 이끌어 오는 경우

11)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全卷, 人間社, 1961, pp. 57-8.

12) 「京釜鐵道歌」에 附曲되어 있는 曲은 엄밀히 말해서 “Comin’ Thro’ the Rye”라는 Scotland 民謠曲을 약간 단순화한 것으로서 그 母體는 이 民謠曲에 틀림없다.

13) 「그의 손」, 「大韓學會月報」第3號, 東京, 1908. 4. 25. 참조.

가 있다. 이를테면,

1) 어귀야 내가논더 접그를세라

(井邑詞 過篇 第2行)

2) 괴시란더 우리곰 좃니노이다

(西京別曲 初聯 未行)

3)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靑山別曲 後歛行)

그러나 위의 詩行들은 엄격한 의미의 7-5調가 아니다. 1)은 3-4-5調, 2)는 4-3-5調, 3)은 4-3-3-2調이다. 더우기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일은 위의 詩行들은 각기 다른 詩形 속에서 異質的인 律調의 詩行 사이에서 눈에 띈 5의 律調를 포함하고 있는 단편적인 詩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開化期의 崔南善이 日本의 唱歌나 新體詩에서 受容한 것은 7-5調와 아울러 엄격한 7-5調로 始終하는 詩形인 것이다. 이런 詩形이 韓國의 傳統詩歌의 흐름 속에 있었느냐가 문제인데 우리는 이에 대하여는 否定的인 답을 내릴 수 밖에 없다. 7-5調가 崔南善 이외의 다른 經路를 통하여 日本詩歌에서 韓國詩歌에 受容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崔南善에 의하여 受容된 사실은 따로 認定해야 할 것이다. 앞 章에서 論한 開化詩歌는 우리나라의 現代詩의 先驅者나 첫 所産이 못되고 口傳叙事民謠의 延長에 지나지 않았던 만큼, 現代詩의 發芽를 1986년 무렵이 아닌 10년 후의 1908년 무렵의 「大韓學會月報」에서 보인 崔南善의 初期詩의 여러가지 실험과 습작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IV

1908년 11월에 創刊되어 1911년 5월에 이르기까지 23권이 간행된 「少年」誌에는 美國을 소개하거나 美國人의 作品을 번역 소개하고 있는 글들이 몇몇 눈에 띈다. 美國이란 나라는 물론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었고 1871년의 辛未洋擾에 의하여 더욱 실감있게 느껴지고 있었을 터임에 틀림없다. 박기림의 「외국가」(독립신문 1896. 8. 1.)에는 「아메리카 후환풍속」이란 詩行이 들어있고 서필군의 「조주독립 외국가」(독립신문, 1896. 5. 9.)에는 「서세동점 막아보세」란 서로 상반된 詩行이 들

어있다. 崔南善은 「大韓學會月報」 第2號에서 美國的인 自由를 읊고있다. 그의 詩 「다유의 신에게」가 감히 美國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詩 바로 위에 게재된 北美合衆國 「뉴욕」港의 自由女神의 사진 및 설명과 아울러 그 自由의 개념이 국가와 국민에 결부된 歐美의 사상을 담고있기 때문이다. 「少年」誌 제1년 제2권에서 崔南善은 美國의 獨立을 소개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들은 밤보다도 돈보다도 벼슬보다도 목숨보다도 美色보다도 自由를 重히 아려서 『우리를 독이소사 그리말나하시거던 自由를 듀소사』하야 生命과 自由를 同視하얏더라.¹⁴⁾

崔南善의 번역이라고 여겨지는 「아메리카 合衆國歌」, 사무엘 에프 스미드 作("America" by Samuel F. Smith) 4聯詩 (「少年」誌 제1년 제2권, p.76)는 사실상 自由를 각 聯에서 찬양하고 있다. 崔南善은 이 自由의 개념을 일련의 그의 詩에서 여러모로 구가하고 있다. 처음 「大韓學會月報」 제2호에 발표했다가 「少年」誌 제2년 제6권에 다시 게재한 「막은 물」이라는 定形詩는 장애물을 만나도 흐르는 自由를 잃지 않는 물의 自由를 主題로 노래하고 있다.¹⁵⁾ 「少年大韓」(「小年」 제1년 제2권)에서 崔南善은 少年들에게 自由의 氣魄을 고취하고 있다.¹⁶⁾ 自由의 개념은 위에 열거한 詩歌들 이외에도 崔南善의 여러 詩歌에 스며들어 「自主」, 「正義」와 더불어 그의 詩歌의 중심 사상을 이루고 있다. 「少年」誌에 실린 불과 몇편 안되는 孤舟(春園)의 詩에서도 이 自由의 개념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英雄」(「少年」 제3년 제3권)과 「곰(熊)」(「少年」 제3년 제6권)에서 孤舟는 自由를 生命과 同等한 國家와 國民의 第一義로 보았고 生命 보다도 自由를 앞세운 곰의 象徴을 예찬하고 있다.¹⁷⁾

참고로 「少年」誌에 발표된 美國에 관한 기사와 번역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나이야가라 瀑布 間紙 사진 및 說明 (1년 1권 p. 80)

14) 「少年」誌 第1年, 第2卷, p. 73.

15) 「大韓學會月報」, 第2號, pp. 56-7 및 「少年」誌 第2年, 第6卷, pp. 2-3.

16) 「少年」誌 第1年, 第2卷, pp. 2-3.

17) 「少年」誌 第3年, 第3卷, pp. 43-5 및 同誌 第3年, 第6卷, pp. 50-4.

2. 아메리카는 이리 높고야 獨立하얏소 (十八條) (1년 2권 pp. 73-5)
3. 아메리카 (아메리카 合衆國歌) (“America” Samuel F. Smith) (1년 2권 pp. 76-7)
4. 電氣王 에디슨의 少年時節 (2년 2권 pp. 33-8)
5. 와싱턴 左右銘 (五十七則) (2년 3권 pp. 5-13)
6. 프랭클닌 座右銘 (2년 4권 pp. 5-9)
7. 와싱턴府 國會堂, 아메리카合衆國 자유女神像, 自由女神像, 世界上 最大鐵橋 (2년 5권 間紙사진)
8. 百年記念의 三偉人, 人道界偉人 아브라함, 링커언 (2년 10권 p. 68)
9. 아브라함, 링커언 (詩 公六) (3년 1권 pp. 2-8)
10. 링커언의 人物과 其 事業 (The Career and Character of Ara(ha)m Lincoln by Joseph Choate) (3년 1권 pp. 9-44)
11. 프랭클닌 (3년 2권 間紙사진)
12. 에머슨을 讀음 (3년 2권 pp. 48-51)
13. 電氣王 에디슨氏의 發明한 機器 (3년 2권 p. 附15)
14. 와싱턴의 生日 (3년 2권 p. 付16)
15. 修養의 거울 헬렌켈너女史의 『나의 將來』 (3년 5권 pp. 20-9)
16. 快男兒의 典型 으루스벨트 (3년 6권 間紙사진)
17. 으루스벨트氏의 世界的 偉大한 所以 (3년 8권 p. 1)

「少年」誌 23권에는 英國이나 露西亞文學의 번역이 몇편씩 들어있으나 美國文學의 번역은 위에서 보는 바대로 거의 없는 형편이다. 다만 Samuel F. Smith의 “America”와 「링커언의 人物과 其 事業」(by Joseph Choate)이 번역 소개되었을 뿐이고, 「헬렌켈너女史의 『나의 將來』」등은 번역이 아니라 기사화한 글에 불과하다.

「少年」詩 이후 1918년 9월에 창간되어 1919년 2월까지 16號를 발행한 「泰西文藝新報」는 歐美文學의 번역소개라는 목적의식을 뚜렷이 내세운 純文藝週刊誌로서 1910년대의 번역문학——특히 歐美詩의 번역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소중한 자료가 되고있다. 「泰西文藝新報」는 歐美文學의 번역소개라는 명분과는 별도로 처음부터 국내 작가들의 寄稿를 널리 권장하고 있어서 실제로 번역소개된 西歐文學의 作品의 篇數를 능가하는 韓國文學의 作品들이 동시에 발표된 公同의 廣場으로 크게 발전했다는 점에서 그 文學史的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본다. 「泰西文藝新報」는 文學藝術 및 音樂·美術등의 광범위한 번역소개와 창작활동을 목표로 한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歐美의 近代詩와 韓國의 當代詩歌를 발표하는 쪽으로 쏠렸다. 그리하여 실제로 발표된 文學作品들의 대부분이 歐美詩 36篇과 韓國詩歌 39篇으로 채워져 있다.

이 이외에 주목되는 것은 歐美詩壇의 소개와 詩論類인 바, 도합 4篇 정도가 실려있다. 그러므로 「泰西文藝新報」는 歐美의 近代詩와 아울러 1910년대의 韓國의 變遷詩를 소개한 詩週刊誌로 보아 옳을 것이다. 海外詩의 번역 중에서 美國作家의 作品만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 1) 「화살과 노래」 (“The Arrow and the Song”) H. W. Longfellow, 譯者未詳, 4호, 1면.
- 2) 「미인의 가슴」 (“The Hemlock Tree”) H. W. Longfellow, H. M. 海夢張斗澈 譯, 6호, 1면.
- 3) 「무덤」 (“The Grave”) H. W. Longfellow, 海夢生 譯, 9호, 7면.
- 4) 「黃昏」 (“Twilight”) H. W. Longfellow, 海夢生 譯, 10호, 6면.
- 5) 「어디로?」 (“Whither?”), H. W. Longfellow, 海夢生 譯, 10호, 6면.
- 6) 「注意하여라」 (“Beware!”), H. W. Longfellow, 海夢生 譯, 10호, 6면.
- 7) 「여름의 비」 (“Rain in Summer”), H. W. Longfellow, 海夢生 譯, 11호, 8면.
- 8) 「물결」 (“The Wave”), H. W. Longfellow, 海夢生 譯, 11호, 8면.
- 9) 「告別」(原題未詳), 에머슨, 三田 譯, 12호, 4면.
- 10) 「村 대장장이」 (“The Village Blacksmith”), H. W. Longfellow, 海夢生 譯, 12호, 8면.
- 11) 「恒常 五月이 아닐다」 (“It Is Not Always May”), H. W. Longfellow, 海夢生 譯, 12호, 8면.
- 12) 「비오난 날」 (“The Rainy Day”), H. W. Longfellow, 海夢生 譯, 18호 8면.
- 13) 「北方物語」, Phoebe Cary, 金仁湜 譯, 14호, 6면.

「泰西文藝新報」에 소개된 歐美의 詩가 도합 36篇인데 이중에 美國作家의 詩가 12편이나 들어 있으므로 언뜻 보기에 美國詩 소개에 큰 비중을 둔 듯해 보이지만, 실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주로 海夢張斗澈(泰西文藝主幹 編輯人)이 번역 발표한 11篇의 Longfellow(1807—82)의 詩 중 5편은 Longfellow의 原作이 아니라 Anglo-Saxon이나 獨逸의 詩를 Longfellow가 번역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Longfellow의 原作이 소개된 것은 실상 6편에 불과하다.

필자가 찾아낸, Longfellow의 原作 아닌 번역시는 다음과 같다.

- 2) 「미인의 가슴」 (“The Hemlock Tree”)……獨逸詩에서 왔음.
- 3) 「무덤」 (“The Grave”)……Anglo-Saxon詩에서 왔음.
- 5) 「어디로?」 (“Whither?”)……獨逸의 Wilhelm Müller의 詩 “Wohim?”에서 왔음.
- 6) 「注意하여라」 (“Beware!”)……獨逸詩 “Hüt Du Dich!”에서 왔음.
- 8) 「물결」 (“The Wave”)……獨逸의 Chrisoph August Tiedge의 詩 “Die Welle”에서 왔음.

이와같은 失錯이 저질러진 원인은 번역자인 海夢이 Longfellow의 詩集 속에 原作詩 뒤끝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Longfellow의 번역시를 原作詩와 혼동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독자들이나 評者들이 지금까지 위에서 필자가 지적한 5편마저를 Longfellow의 原作이라 잘못 알아온 것이 무리는 아니다.

「泰西文藝」에 歐美詩를 번역소개한 主役들인 岸曙나 海夢은 번역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은 듯하며, 그들의 번역은 비교적 잘 됐거나 무난한 곳도 있지만 빈번히 어치구니 없는 誤譯을 저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번역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聯을 뛰어넘기도 했다. 海夢이 Longfellow의 原作詩나 번역시를 우리 말로 옮긴 것을 보더라도 쉽사리 그 당시의 번역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海夢은 2) 「미인의 가슴」의 번역에서 “bosom”은 「뺨」으로 誤譯하여 전체 시의 분위기와 아울러 詩想을 깨치고 있다.

She has *bosom* as white as snow.

저는 눈과 갓치 흰 뺨을 가졌다.

12) 「비오난 날」을 번역할 때 海夢은 한층 더 愚昧한 실수를 저질러서 詩를 훼손시키고 의미가 통하지 않게 만들었다.

The day is cold, and dark, and *dreary*;
It rains and the wind is never weary:

.

And the day is dark and *dreary*.

其日氣는 寒冷하고 暗黑하고 乾燥하다
비는 쓰다지고 바람을 굿칠줄을 모른다.

.

날은 어둡고 乾燥하다.

海夢은 더우기 6) 「注意하여라」와 10) 「村 대장장이」를 번역할 때 原作에서 각기 1聯씩을 빠뜨리고 있다. 빠뜨린 이유를 확인할 길은 없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번역이 어려워져 고의로 탈락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탈락된 聯을 다음과 같다.

“Beware!”의 마지막 聯,

She gives thee a garland woven fair,

Take care!
 It is a fool's cap for thee to wear,
 Beware! Beware!
 Trust her not!
 She is fooling thee!

“The Village Blacksmith”의 끝에서 두번째 聯.

Toiling,—rejoycing,—sorrowing,
 Onward through life he goes;
 Each morning sees some task begin,
 Each evening sees it close;
 Something attempted, something done,
 Has earned a night's repose.

이처럼 1910년대에 행해진 歐美詩의 번역은 신빙도가 약하다. 美國詩로서 소개된 Longfellow의 경우만 하더라도, Longfellow의 詩만이 반드시 주로 소개되어야 할 당위성이 없는데다가 작품을 선정할 때 저지른 오류와 부정확한 번역과 聯의 탈락이 곁들여져 있어, 海外詩를 번역소할 때에 기대되는 성과를 거의 얻지 못했음은 명백한 일이다.

「少年」誌 이전에는 美國詩가 우리말로 번역소개된 일이 거의 없었다고 여겨지며, 「少年」誌에도 美國詩로는 Samuel F. Smith의 “America”가 번역 게재 되었을 뿐이었다. 1910년대 후반에 이르러 「泰西文藝」가 번역소개한 美國詩는 지금 살폈거니와, 1910년대를 통털어 「泰西文藝」 밖에서 번역소개된 美國詩는 지금까지 조사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開化期 이후 1919년말까지는 빈약하나마 Longfellow의 詩가 몇편 번역 소개된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韓國의 詩가 美國詩에서 受容한 受惠를 擧論하기 어렵다. 美國詩만이 아니라 美國文學 전반에 걸친 번역소개를 살펴도 결과는 거의 마찬가지다. 1919년말까지 詩 이외의 장르에서 번역소개된 것은 Washington Irving(1783—1859)의 수필 4편 정도이기 때문이다.¹⁸⁾

18) 金秉喆 교수의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乙酉文化社, 1975)는 翻譯된 作品의 年代와 出處를 일일이 밝힌 力著로서 翻譯文學研究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필자는 이하에서 이 著者의 附錄인 「西洋文學翻譯年代表」(pp. 937-1026)을 주로 참고하고 美國詩의 翻譯을 헤아렸다.

V

「泰西文藝」 이후 1920년대에는 대략 40편의 美國詩가 雜誌類에 번역 소개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는 美國詩의 번역소개에 있어 적어도 量的으로 다소간의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詩人이 Walt Whitman(1819—92)이다. Whitman의 詩는 量的으로도 가장 많이 번역소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Whitman의 詩가 소개된 年譜를 밝히기 위해서 우선 그의 번역시를 年代順으로 추려 보기로 한다.

- 1) 「青年은 晝 老年은 夜」, 朴憲永 譯, 「文友」 1:1, 1920. 5. 1.
- 2) 「嗚呼死를 보내는 行進曲이여」, 에덴 譯, 「서울」 2:6, 1920. 10. 15.
- 3) 「버지니아의 숲을 헤매이면서」, 同上.
- 4) 「풀(草)이란 무엇?」, 同上.
- 5) 「先驅者여 오 先驅者여」, 金石松 譯, 「開關」 3:7, 1922. 7. 10.
- 6) 「내가 農夫의 農事함을 볼 새」, 同上
- 7) 「憧憬과 沈思의 瞬間」, 同上
- 8) 「將次을 詩人」, 同上
- 9) 「어색한 娼婦에게」, 同上
- 10) 「假面」, 同上
- 11) 「펜을 든것을 어찌케 생각하는가?」, 劉無涯 譯, 「青年」 2:9, 1922. 7. 10.
- 12) 「二老兵에 寄하는 挽歌」, 李炳虎 譯, 「海外文學」 2, 1972. 7. 4.
- 13) 「난대 업는 이의게」, 同上
- 14) 「憧憬하고 默想할 그새」, 同上
- 15) 「勝利의 名聲을 읽을 새」, 同上
- 16) 「磔刑바든 그에게」, 金石松 譯, 「文藝公論」 1:1, 1929. 5. 1¹⁹⁾

1920년대에 번역소개된 美國詩人 중에서 Whitman 이외에 두 詩人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 중의 하나는 1910년대에 이미 「泰西文藝」에서 海夢에 의하여 번역소개된 Longfellow이다. 1920년대에 그의 詩가 6篇 번역소개 되었다.

- 1) 「人生의 노래」, 柳澄基 譯, 「曙光」 2:5, 1920. 7. 5.
- 2) 「人生의 歌」, 自大鎮 譯, 「新天地」 1:2, 1921. 8. 20.
- 3) 「참비오는 날」, 李讚龍 譯, 「青年」 3:10, 1923. 11. 1.
- 4) 「별빛(星光)」, 暮谷生 譯, 「活婦女」 2:6, 1927. 3. 5.
- 5) 「비오는 날」, 同上

19) 同上書, pp. 944-73 참조.

6) 「애기들아」, 鷄步 譯, 「學窓」 2:2, 1928. 3. 1.²⁰⁾

그런데 위의 「人生的 노래」와 「人生的 歌」는 Longfellow의 “Psalm of Life”이므로 결국은 1편 만이 새로 번역소개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참비오는 날」과 「비오는 날」은 Longfellow의 “The Rainy Day”로서 1910년대에 이미 「泰西文藝」가 번역했던 것이므로 새로운 詩의 번역소개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1910년대와 1920년대를 통털어 Longfellow의 詩는 9편 밖에 소개되지 않은 셈이다.

1920년대에 소개된 美國詩人으로 비교적 중요시되는 마지막 한 사람은 Sara Teasdale(1884—1933)이다. Teasdale의 詩 6편이 번역 소개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아말피의 밤노래」, 吳天錫 譯, 「朝鮮文壇」 2:1, 1925. 1. 1.
- 2) 「그대의 사랑안에 살고싶혀」, 同上
- 3) 「봄날밤」, 同上
- 4) 「네귀의 바람」, 同上
- 5) 「나 마음치안으리라」, 바울 譯, 「우라키」 1, 1925. 9. 26.
- 6) 「이저바리여요」, 異河潤 譯, 「海外文學」 2, 1927. 7. 4.²¹⁾

이것이 1920년대에 번역소개된 美國詩의 거의 전부이다. 이 밖에는 Edgar Lee Masters (1869—1950)의 詩 「오 젊은 독수리들아」와 「나의 빛 그대의 것과 더브러」가 주요한과 바울에 의하여 번역소개되었고, Amy Lowell, Edgar Allan Poe, John Greenleaf Whittier, James Russel Lowell, Joyce Kilmer, Carl Sandburg 등의 詩가 단 1편씩 번역소개되었을 뿐이다.

海外詩가 韓國語로 번역소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作家들 중에는 海外詩를 原文으로 읽고 影響을 받았을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 1920년 이전부터 詩作活動을 한 주요한은 英語에 능통했었고, 1920년 중반의 海外文學派에 속했던 作家들 중에도 英語에 능통하거나 英美文學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心證을 넘어 確證되기가 매우 어렵다.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번역소개된 가장 중요한 美國詩人인 Walt

20) 同上書, pp. 944-73 참조.

21) 同上書, pp. 944-73 참조.

Whitman이 韓國作家들, 이를테면 李光洙나 주요한에게 부분적인 影響을, 그리고 金石松에게 여러 면에서 깊은 影響을 끼쳤음에 틀림없다는 見解를 金容稷 교수가 그의 論文「韓國 現代詩에 끼친 *Leaves of Grass*의 影響」에서 논술하고 있다.²²⁾

李光洙나 주요한의 경우는 Whitman의 詩에서 왔다고 느껴지는 影響이 단편적이며 불분명하기 때문에 金 교수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論證을 보류하고 있으며, 필자가 보기에 이 影響은 立證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金 교수가 상당히 깊이 그리고 폭넓게 파헤치고 있는 이른바 金石松이 Whitman에게서 受容한 影響에 대해서는 수공이 가는 데가 많다.

金石松은 Whitman을 어느 정도 理解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철저히 信奉했으며 「草葉集」등의 影響을 受容했다고 생각되는 文學論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金 교수에 의하면, 金石松은 Whitman에게서 詩作上의 거의 모든 受惠를 입은 사람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광범위한 影響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Whitman의 影響이 金石松 개인뿐 아니라 變遷期의 韓國詩에 미친 影響도 아울러 考察되어야 할 줄로 안다.

끝으로 1930년대에 번역소개된 美國詩를 살펴보면 전체 편수는 약 60편에 달한다.²³⁾ 이 중에서 詩인이 1930년대 이전에 이미 韓國에 알려져 있었던 경우를 먼저 고찰한다면, Carl Sandburg가 1930년대에 와서 11편을 추가하고, 이어 Whitman이 8편, Sara Teasdale이 7편, Longfellow와 Poe가 각기 3편, 그리고 E. L. Masters와 Emerson과 Kilmer가 각기 1편을 추가하고 있다. 1930년대에 와서 처음으로 소개된 美國詩人和 번역된 詩의 편수를 살펴보면, 黑人詩人들인 Langston Hughes (1902—1967)와 Countee Cullen (1903—46)이 각기 4편씩, 그리고 Vachel Lindsay (1879—1931)가 3편, 그리고 Louis Untermeyer(1885—)와 黑人作家인 Claude McKay (1890—1948)가 각기 2편씩 번역소개되었고, 이 밖에 Ezra Pound (1885—1972)를 포함한 10名の 詩人の 詩가 각기 1편씩 번역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서울大學校 敎養課程部 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第2輯, 1970年 4月, pp. 31-55.

23) 金秉喆「韓國近代翻譯文學研究」, pp. 724-26 참조.

1930년대에 新聞雜誌類에 소개된 美國詩 60편 중에는 그 이전에 일단 번역 발표되었던 바 있는 詩와 번역자는 과거와 다르지만 동일한 詩가 선택되어 번역소개된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1930년대에 韓國에 처음으로 번역소개된 美國詩는 실제로는 60편이 훨씬 못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1930년대에 번역 소개된 Longfellow의 詩 3편은 1920년대에 이미 번역소개되었던 「인생의 讚美」와 「아이들」과 「人生의 歌」이므로 1930년대에 새로운 詩를 추가하지 못하여 결국 1920년대말까지 번역소개되었던 9편에 머물고 있다.

Whitman의 경우는 1930년대에 소개된 8편 중 2편이 1920년대에 이미 번역소개되었던 作品들이다. 그것들은 「將次 올 詩人」과 「青年과 낮, 老年과 밤」이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 번역소개된 16편에 실제로는 1930년대에 6편이 추가되어 22편이 소개된 셈이다.

Sara Teasdale의 경우는 1920년대에 6편이 번역소개되었고 1930년대에 7편이 소개되었으나, 이 7편 중 5편이 20년대에 번역소개되었던 詩가 거듭 소개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1930년대에 새로 2편 밖에 추가하지 못하여 결국 전체 8편이 번역소개된 셈이다. 중복 소개된 詩들은 1) 「이 저바립시다」, 2) 「아말피의 밤노래」, 3) 「그대의 사랑안에 살고싶어」, 4) 「봄날밤」, 5) 「네귀의 바람」이다.

Carl Sandburg의 경우는 1920년대에 단 1편, 그리고 1930년대에 11편이 번역소개되었다. 그런데 1930년대의 11편 중에는 1920년대에 번역소개된 「안개」가 들어있으므로 전체는 결국 11편이 되는 셈이다.

E. L. Masters의 경우는 1920년대에 2편, 그리고 1930년대에 1편이 소개되었는데 「젊은 독수리들아」가 두번 소개되었으므로 결국 2편의 詩가 번역소개된 셈이다.

E. A. Poe의 경우는 1920년대에 1편, 그리고 1930년대에 2편이 소개되었는데, 1930년대에 번역소개된 詩 두편은 실제로는 동일한 詩 「애너벨 리」를 서로 다른 번역자가 번역소개한 것이어서 실제로 번역소개된 詩는 단 2편에 머문다.

이 밖에 J. Kilmer의 경우는 1920년대에 번역소개되었던 「나무」가 1930년대에 다른 역자에 의하여 다시 번역소개 되었으므로 실제로는 1편만이 소개되었다. Emerson은 1910년대에 「泰西文藝」에서 1편이 번역

소개되었던 바 있고 1930년대에 다른 詩 1편을 추가하여 모두 2편이 소개되었다.

번역자의 동일한 번역이 중복 소개되거나 서로 다른 번역자가 동일한 詩作品을 선택하여 번역소개한 경우, 먼저 번역소개한 것만을 추릴 때, 1930년대 말까지 2편 이상의 詩가 韓國에 소개된 美國詩人들과 편 수는 다음과 같다.

- 1) Walt Whitman 22편
- 2) Carl Sandburg 11편
- 3) H. W. Longfellow 9편
- 4) Sara Teasdale 8편
- 5) Langston Hughes 4편
- 6) Countee Cullen 4편
- 7) Vachel Lindsay 3편
- 8) Edgar Lee Masters 2편
- 9) Edgar Allan Poe 2편
- 10) Ralph Waldo Emerson 2편
- 11) Louis Untermeyer 2편
- 12) Claude McKay 2편

동일한 詩가 중복하여 번역소개된 경우들을 제외한다면 開化期 이후 193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에 번역소개된 美國詩는 우선 그 量이 대단히 빈약함을 알 수 있고, 또 소개된 詩人들도 美國의 詩人들을 증점적으로 또는 보편타당성있게 선택하여 소개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VI

우리는 지금까지 韓國現代詩가 受容한 美國的인 影響들을 증점적으로 고찰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당초 예상했던 바에 비해 거의 반대로 나타났다 할 수 밖에 없다.

첫째로 開化期의 韓國詩歌가 의례 受容했을 것이라고 速斷해온 基督教의 讚頌歌에서 온 影響도 詩形上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內容上에 基督敎的인 표현을 담은 詩句가 몇몇 발견되었을 뿐이다. 開化詩歌의 詩形은 지금까지 잘못 생각되어온 바와는 달리 韓國의 口傳文學의 흐름에서 대대로 傳受되어온 叙事民謠의 詩形임이 확실히 되었다.

둘째로, 開化詩歌의 詩形이 民謠에서 온 것이니만큼 그것을 朝鮮의

傳統詩歌가 現代詩로 變遷하는 過程의 첫 所産으로는 볼 수는 없고 적어도 1900년 이후 6, 7년이 지난 뒤에 주로 崔南善에 의하여 쓰여진 7-5調의 詩歌나 그가 「大韓學會月報」에 발표한 詩들을 비롯한 새로운 律格의 詩들을 우리나라의 現代詩의 最初의 作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崔南善이 詩에서보다는 唱歌에서 즐겨 採用한 7-5調는 韓國의 傳統詩歌의 흐름에서 찾아볼 수 없는 異質的인 律格임이 거의 확실하다. 적어도 崔南善에 의하여 널리 퍼진 7-5調는 1882년 이후 日本에서 新體詩에 起用되어 明治時代의 중반을 풍미했던 日本和歌의 韻律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7-5調가 日本에서 明治時代에 와서 크게 再興하게 된 이면에는 한 美國人 哲學者의 著書가 日本學者인 西周에 의하여 1879년 무렵에 日本語로 번역된 일이 있었음을 필자는 위에서 밝혔다.

셋째로, 開化期 이후 韓國의 現代詩歌가 受容했음에 틀림이 없다는 心證이 가는 外來的인 思潮 중에서 중요시되는 것이 自由의 개념이었다. 韓國의 傳統詩歌에서는 異質的으로 보이는 이 自由의 개념이 初期 現代詩에 崔南善, 李光洙 등에 의하여 중심적인 사상으로 受容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

넷째로, 1910년대에는 韓國의 現代詩史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泰西文藝新報」의 발간이 있었다. 「泰西文藝」에는 歐美의 詩와 韓國의 詩歌가 대략 40편씩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美國文學에서 번역소개된 것으로는 H. W. Longfellow의 詩 6편 정도에 불과하다. 번역 자체에도 誤譯과 탈락된 聯이 있어 海外의 詩歌를 충실히 번역소개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美國的인 影響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다섯째로, 1920년대에는 海外文學이 비교적 많이 우리나라에 번역소개되었다. 美國文學作品들도 量的인 증가를 보였다. 1920년대에 번역소개된 美國詩人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詩人으로서도 大家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Walt Whitman이다. Whitman의 詩를 우리나라에 번역소개한 國內作家들 중에서 특히 金石松은 Whitman에게 심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詩論과 詩作過程의 여러 면에서 Whitman에게서 받은 影響이 컸던 사람으로 여겨진다.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金容稷 교수의 論文이 이미 나와 있지만 後者가 前者에게서 受容한 影響은 앞으로 더욱 세밀하고 철저하게 밝혀서 外來的인 影響이 國內作

家의 詩論과 作品에 나타나서 새로운 藝術的인 價値를 형성하는 경위와 과정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1930년대에 移入 소개된 美國詩는 전체가 약 60편에 달하는데 과거에 이미 번역소개되었던 것들을 제외한다면 그 수는 훨씬 줄어든다. 開化期 이후 1930년대 말까지 美國詩人들 중에서 Whitman, Sandburg, Longfellow, Teasdale의 詩가 8편에서 22편 정도 번역소개되었고 이 밖의 약 20명의 詩가 1편에서 4편 정도 번역소개되었을 뿐이다. 이는 물론 같은 기간에 移入된 프랑스나 英國의 詩에 비해 몹시 빈약하다. 그러나 文學作品이 미치는 影響은 반드시 移入 소개된 作品의 量에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韓國의 傳統詩歌가 現代詩가 變遷 發展해온 過程에 기여했을 海外詩나 詩論이 끼친 影響 중에서 除外될 수 없는 美國의 影響에 대해서 本稿에서 試論적으로 헤아린 바에 대하여 본격적인 研究가 續行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參 考 文 獻

- 金秉喆, 「開化期(1890—1900) 詩歌史上에 있어서의 初期 韓國讚頌歌의 位置」, 「亞細亞研究」, Vol. 14, No. 2 (通卷 42호), 亞細亞問題研究所, 高麗大學校, 1971.
- ,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乙酉文化社, 1975.
- 金容稷, 「韓國 現代詩에 끼친 *Leaves of Grass*의 影響」, 서울大學校 教養課程部 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第2輯, 1970年 4月.
- 自鐵, 李秉岐, 「國文學史」, 新丘文化社, 1972.
- 任東權, 「韓國民謠集」, 東國文化社, 1961.
- 趙東一, 「敘事民謠研究」, 啓明大學 出版部, 1970.
-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全卷, 人間社, 1961.
- 皮千得, 沈明鎬, 「英美의 Folk Ballad와 韓國 敘事民謠의 比較研究」, 「研究論叢」, 2輯, 서울大學校 教育會, 1972年 3月.
- 藤村作 編, 「日本文學大辭典」(增補改訂) 第4卷, 新潮社, 1950.
- 下中彌三郎 編, 「大百科辭典」第7卷, 平凡社, 1932.
- 柳田泉, 「明治文學研究」5, 春秋社, 1961.
- Aldridge, A. Owen, *Comparative Literature: Matter and Method*,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9.

- Gifford, Henry, *Comparative Literatur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9.
- Stalknecht, Newton P. & Frenz, Horst, ed., *Comparative Literature: Method and Perspective*, rev. ed.,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71.
- Weisstein, Ulrich, *Comparative Literature and Literary The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3.

「독립신문」(1896—8), 「大韓學會月報」(1908), 「少年」(1908—11) 및 「泰西文藝新報」 등을 포함한 舊韓末 韓國雜誌類 및 新聞類